

변경(邊界)과 과경(跨界): 동아시아 시선 속의 진먼(金門) 지역사(區域史) 연구

지양뵈웨이(江柏煒) 진먼대학 민난문화연구소(金門大學閩南文化研究所)

진먼은 타이완 해협의 서쪽, 민난 지우룽지앙커우, 사먼만 및 웨이터우만 밖에 위치해 있고 견고한 성벽처럼 해문을 굳건히 지키는 듯한 기세를 갖추고 있는 바 14세기 후반 이래로 해안 방어 전략 요지였다. 1949년부터 1992년까지 국공대치, 세계냉전구도의 전방기지가 되어감에 따라 사회와 공간은 고도로 군사화되었다. 이 논문은 근 20년 이래 진먼 지역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 그것이 인문사회와 타이완 역사 연구 영역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초기 타이완 이민의 원적지 중 하나로서 진먼은 이주와 개간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기점으로 대항해 시대의 거점이 되는 변화를 겪었다. 명청 시기에 발간된 지방지와 편저작에서는 진먼의 주체성이 부각되었고, 국가와 지방의 대쪽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진먼이 남긴 무형, 유형의 문화재는 건축사, 종교 연구, 지방풍속 연구의 중요한 현장이 되었다. 두 번째, 근대 이래 진먼에서 경계를 넘어 유통하는 사회집단, 자본 및 문화 전파의 현상 그리고 교향 사회, 화교 가족 및 해외회관 연구 영역의 전개를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는 1949년 이후 냉전으로서의 진먼, 즉 사회형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근대 역사 초기 '탈군사회' 기록에 관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먼의 지역연구와 지역사, 국족사, 세계사를 연결시켜 봄으로써 여러 학문 간 대화의 중요성 및 진먼 연구의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민난(閩南)문화, 진먼학(金門學, Quemology), 교향(僑鄉) 연구, 냉전사, 사회문화사

I. 진먼 및 '진먼학': 타이완 연구의 새로운 판도인가?

근대 역사 초기(晩近) 20년, 타이완(臺灣) 연구는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학, 민속연구 등 영역에서 성과를 이루었고 국내외 학계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타이완의 실질적 영토는 타이완 섬, 평후(澎湖), 진먼(金門), 마주(馬祖) 군도를 포함했다. 이 지역의 역사 경험, 사회조직, 경제구조, 언어습속 그리고 정치적 아이덴티티는 서로 달랐다. 타이완에서 포용성, 다원성의

정치경제 혹은 문화적인 공동체로서 진먼 및 ‘진먼학(Quemology)’¹은 하나의 개척해야 될 영역이다.

과거 50여 년, 진먼은 타이완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군사전선(軍事前線)이고, 군복무 청년들이 ‘진마장(金馬獎)’² 세월을 보내는 섬이다. 사실상 ‘리다우(離島, offshore island), 근린도서’라는 단어는 지리적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타이페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시야의 재현을 드러내고, 진먼(마주, 평후)의 변두리 역할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먼은 하나의 ‘지역(地方)’일 뿐만 아니라 타이민(臺閩), 나아가 동아시아 및 세계 네트워크의 한 거점이다. 11세기부터 중원씨족(中原氏族)이 남쪽으로 피난하거나 삶을 개척하러 오는 섬이었고, 이에 따라 몇십 개의 역사가 깊은 종족마을들이 발전되었고 이들은 농어업 위주의 경제생활을 영위했다. 14세기, 1380년대 강하후 주덕흥(江夏侯周德興)이 푸젠(福建)을 다스리게 되었고 군대를 동원하여 영녕위(永寧衛)를 세워 지키는 목적은 해상에서 오는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5세기 중엽 이래 민난(閩南)³ 사람들이 조정의 해금정책(海禁政策)에 도전했다. 이들은 동남아와 왕래하며 해상무역을 하고, 또 서구 식민자(예: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서로 경쟁과 합작을 했는데, 이들을 초기 전지구화의 실천자로 볼 수 있다. 17세기 후반, 명정(明鄭) 집단이 진먼, 샤먼을 점령하고 청나라에 반대했다. 이 정권 집단에는 진먼 출신의 군사들이 적지 않았고 동시에 진먼 사람들이 타이완 해협을 넘어 평후(澎湖)로 이민가면서 마을을 만들었다. 이들은 청나라 초기부터 중엽까지 안핑(安平), 루강(鹿港), 명지아(艋舺)에 청나라 병사(班兵)들의 회관인 진먼관(金門館), 우장관(浯江館)을 연달아 세웠고, 수푸왕에(蘇府

1 소위 ‘진먼학’은 아직도 구축 단계에 있는 것이지 이미 완성된 학술적 범주가 아니다. 타이완 각지에서 10여 년째 유행하고 있는 ‘○○학’[예: 타이페이학(臺北學), 평후학(澎湖學), 이란학(宜蘭學), 원린학(雲林學)]은 사실상 정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물론 동시에 그 자체가 연구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이 ‘○○학’은 대다수가 지방 정부의 경비 지원을 받고 있고 각 지의 ‘문사공작자(文史工作者)’의 개입 아래 자주 토론회를 개최하고 책을 출판하는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의 특수성을 찾고 타자와의 구별화를 시도한다. 이 논문은 ‘진먼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학과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진마장(金馬獎)’이란 타이완이 1962년부터 창설한 영화상이다. 그러나 군복무자가 ‘진먼, 마주’에 뽑히면 풍자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3 중국 푸젠성의 남부 지역을 가리킨다(역주).

王爺)의 민간신앙도 갖고 갔다.

19세기, 20세기 초 많은 진먼의 청·장년 인구가 동남아로 이주를 했다. 이 주자 중 일부는 일본의 나가사키와 고베로 갔는데, 일본 이주자들은 노동계급의 쿨리(苦力)와 상인들이었다. 이민송금경제(僑匯經濟)는 교민 가족(僑眷)에 희망을 가져다주었고 교민(僑鄉) 사회의 사회적 근대화를 촉진했다. 1949년 이후 진먼은 국공대치(國共對峙), 세계냉전 구도의 군사전방으로 4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지정무체제(戰地政務體制)가 실행되어 지역사회와 공간은 변화를 강요받았다. 1990년대 양안관계가 변화되고 2001년 진샤(金廈) ‘소삼통(小三通)’의 개방은 진먼이 민난(閩南) 지연관계(地緣關係) 속에 되돌아오게 했고, 타이완 상인이 중국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문호가 되었다. 이로써 진먼인들이 대량으로 관광과 부동산 투자자 샤먼(廈門)에 유입되었으며, 정치와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타이완 본도 사람들과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 논문은 근 20년 이래 진먼 지역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 그것이 인문사회와 타이완 역사 연구 영역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초기 타이완 이민의 원적지 중 하나로서 진먼은 이주와 개간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기점으로 대항해(大航海) 시대의 거점이 되기까지의 변화를 겪었다. 명청(明清) 시기에 발간된 지방지(地方志)와 편저작에서는 진먼의 주체성이 부각되었고, 국가와 지방 대족(大族: 명문 대가/거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진먼이 남긴 무형, 유형의 문화재는 건축사, 종교 연구, 지방 풍속 연구의 중요한 현장이 되었다. 이어 두 번째로 근대 이래 진먼에서 경계를 넘어 유동하는 사회집단, 자본 및 문화 전파의 현상 그리고 교향(僑鄉: 화교의 집거지) 사회, 화교가족 및 해외회관(會館) 연구 영역의 전개를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는 1949년 이후 냉전의 섬으로서의 진먼, 즉 사회형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근대 역사 초기(晚近) ‘탈군사화(去戰地)’ 기록의 다양한 시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먼의 지역연구와 지역사(地域史), 국족사(國族史), 세계사(世界史)를 연결시켜 봄으로써 여러 학문 간 대화의 중요성 및 진먼 연구의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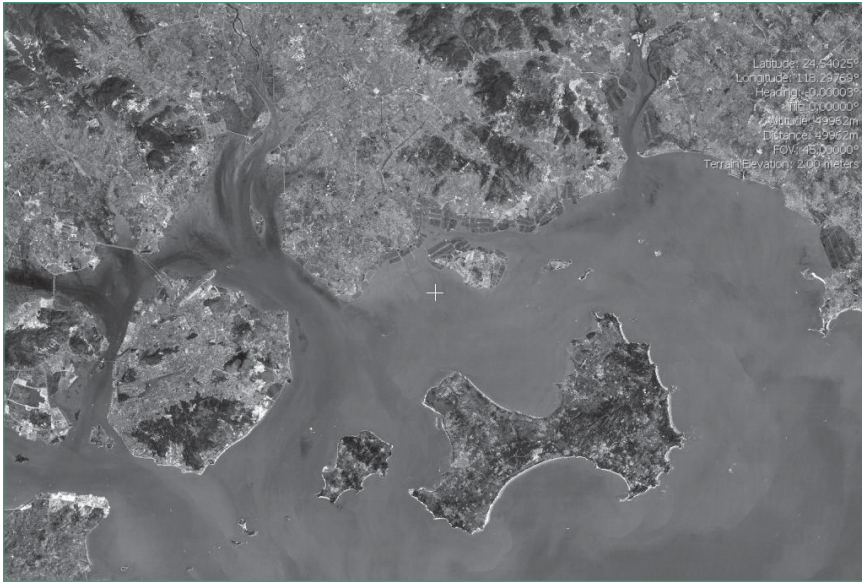


그림 1. 진먼 및 주변 위성 사진

II. 민난원향(閩南原鄉: 본고장)으로서의 진먼: 종족사회의 건립 및 이민

진먼은 과거에 우저우(浯洲), 우지양(浯江), 우다우(浯島), 창우(滄滬) 등으로 불렸고, 진먼 본도와 리에위(烈嶼) 여러 섬으로 조성되었다. 위치는 푸젠 성 남부 지우룽지양커어우(九龍江口), 샤먼(廈門)만과 웨이터우(圍頭)만 밖에 있고, 내적으로 장샤(漳廈: 장주(漳洲)와 샤몐를 지키고, 외적으로 타이완과 평후를 통제하며 해양 전략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역사상 ‘금탕⁴처럼 견고하고 해문을 굳건히 지킨다(固若金湯, 雄鎮海門)’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다.

⁴ 사자성이 금성탕지(金城湯池)에서 온 단어. 금성철벽과 같은 뜻으로 방비가 매우 튼튼한 성을 가리킨다.

1. 중원으로부터 진먼까지

진먼은 과거에 우저우, 시엔저우(仙洲)라고 불렸고, 명나라 초기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진(晉)나라 때, 중원에 번고가 많아 도주한 난민 6성씨(蔡, 陳, 吳, 蔡, 呂, 顔)가 이곳에 정착했다. 당나라 때는 만안목마감(萬安牧馬監)⁵을 부설했던 지역이다. 덕종정원(德宗貞元) 19년 민관찰사(閩觀察使) 류면(柳冕)이 임직하면서 목마감(牧馬監) 진원(陳淵)과 함께 12성씨(蔡, 許, 翁, 李, 黃, 王, 呂, 劉, 洪, 林, 蕭)가 정착하기 시작했다. 왕심지⁶는 『민편천속읍(閩編泉屬邑)』에서 산천과 해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송나라 때 태평성세 3년 시기,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후차우(戶鈔)⁷를 받기 시작했다. 희풍(熙豐) 시기, 도도(都圖)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 도도에는 4개의 도(都), 9개의 도(圖)가 포함되었는데 상풍리(翔風里), 수덕향(綏德鄉)에 속했다. 가정(嘉定) 10년, 진덕수(真德秀)가 천주부(泉州府)를 맡게 되고 료우루어(料羅)만⁸을 지키는 전쟁에 사용되는 선박을 관리했다. 함순(咸淳) 기간 논밭 크기에 따라 징수하고 말을 키웠다. 원나라 초기 염전을 만들었고, 원나라 6년에 관구사(管勾司)를 설립했다가 1309년에 사령사(司令司)로 이름과 직능을 변경했다. 홍무(洪武) 원년, 타석사(踏石司)로 고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염과사(鹽課司)로 고쳤으며, 20년에 진먼에서 천호소(千戶所)를 지키는 봉상(峰上), 관오(官澳), 전부(田浦), 진갱(陳坑)에 사순검사(四巡檢司)를 설치했다(林焜熿, 1960: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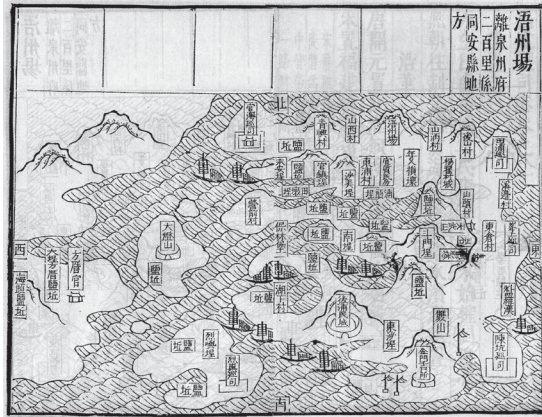
그러나 지방의 족보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섬에 사는 주민은 대부분 송원(宋元) 이후 민난 각지로부터 이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송 시기 천주 량극가(梁克家), 증종용(曾從龍), 부자득(傅自得) 세 가족이 진먼에 왔고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기타 씨족들도 잇따라 이민오고 정주 형태의 마을을 형성했다. 예를 들어,

⁵ 목마감은 고대 관직 호칭이다(역주).

⁶ 왕심지(862~925년)는 중국 5대 10국(당나라 멸망 이후 북송 건립 이전 시기) 시기 민국(閩國)의 왕이다.

⁷ 농민들이 세금을 낸 뒤 받는 영수증과 같은 것이다(역주).

⁸ 료우루어만은 진먼 섬의 동남연해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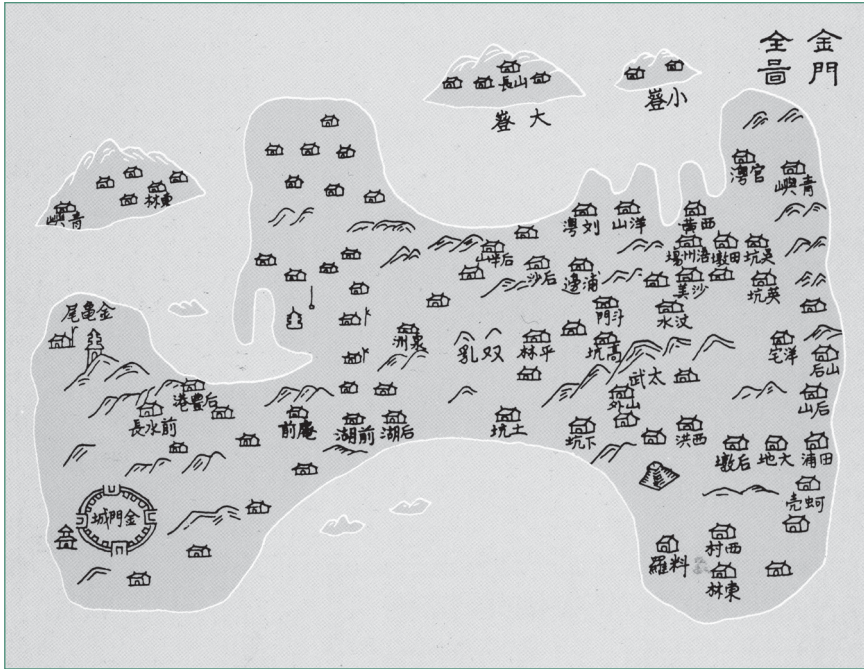


출처: 江大鯤等主修, 『福建運司志』, 1613.

그림 2. 우저우 지도

후포(後浦), 관오(官澳), 호미(湖尾), 평림(平林) 등이다. 원나라 대덕 원년(大德元年, 1297년), 진먼은 염장(鹽場: 염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염장은 모두 10정(埕)이고, 이 정은 상하로 구분하여 상정(上埕)은 영안(永安), 관진(官鎮), 전둔(田墩), 사미(沙尾), 보두(浦頭)이고 하정은 두문(斗門), 남안(南坂), 보림(保林), 동사(東沙), 열서(烈嶼)이다. “사령(司令), 사승(司丞), 두목(頭目), 관구사(管勾史), 사목(司目)을 설립하고 백성을 염부로 만들었는데 열 사람을 한 강(綱)으로 편성해 한 조(籠)가 되고, 매 사람이 소금 3리터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林焜熾, 1960: 38, 그림 2 참조).

명조 이후 진먼의 개발은 가속화되었다. 홍무(洪武) 20년, 장사허우(江夏侯) 주덕흥(周德興)은 진먼에 천호소를 설립하라는 명령을 받고 섬의 서남쪽에 성을 보호하는 벽을 쌓고 동남의 해역을 보호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부터 군대를 차출해 왔는데, 현재 성내에 사는 니(倪), 사오(邵), 왕(王), 위(俞), 청(戚) 등 성씨는 당시 차출되어 온 군대의 후예다. 명나라 중엽부터 청나라 초기는 진먼이 가장 흥성했던 시기다. 당시 아마 4,000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다(江柏煒, 1999: 133-177). 정통 8년(1443년) 이후, 관부(官府)에서 세금을 쌀로 징수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개간에 뛰어들었다(林焜熾, 1960: 40). 가정(嘉靖)과 융경(隆慶) 연간, 진먼은 이미 15도(都), 16도(都), 17도(都), 18도(都), 19도(都), 20도(都) 등으로 편성되었고 다쇼우 진먼(大小金門)은 모두 166개의 마을이 있



출처: 林焜熿, 『金門志』, 圖版, 1960.

그림 3. 침나라 도통(道同) 연간 진먼 전역 지도

었다(林焜熿, 1960: 19-20, 그림 3 참조). 초보적으로 오늘날 진먼의 종족마을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지(溍地)는 비좁고 척박하며 거기에 풍사(風砂)의 위협까지 있어 백성 중 일을 가진 사람이 몇 안 된다.”(洪受, 2002: 117) 그들은 수원, 좋은 밭, 어장 혹은 풍수지리 때문에 투쟁을 했다. 명청 시기에는 예를 들어 경림 채씨(瓊林蔡姓)와 하갱 진씨(下坑陳姓), 고령두 이씨(古寧頭李姓)와 호하 양씨(湖下楊姓) 등의 층들이 있었고, 심지어 서로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성문화되지 않은 종족 규범도 있었다. 종족의 발전과 대체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경림 채씨와 후보동문 허씨(後浦東門許氏)가 진씨(陳氏)를 대체했다.

2. 진먼으로부터 타이완까지

명정(明鄭) 시기 진먼, 샤먼은 청나라를 반대하고 명나라를 회복하는 기지였고 사회변동이 심했다. 특히 정태(鄭泰)가 진먼에 주둔하고 있던 기간에는 징수가 과중하고 백성들의 원성이 컸다(金門縣政府, 1992: 권1 104, 권9 1216-1221). 1661년 정성공(鄭成功)이 군사를 동원하여 타이완으로 건너와 네덜란드 세력을 내쫓았다. 당시 정성공은 바로 지금 진먼의 료우루어(料羅)항으로부터 출항했다(楊英, 1958). 1663년 10월, 청나라 정남왕(靖南王) 경계무(耿繼茂), 총독 이수태(李率泰), 제독 마득공(馬得功), 항복 장군 황오(黃梧), 시랑(施琅) 등이 네덜란드 철갑선을 타고 취안저우(泉州)에서부터 진먼, 샤먼 두 섬으로 진공하고 정(鄭)의 군대와 진먼 우사터우(金門烏沙頭)에서 해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정(鄭)의 군대는 패배했고 통산(銅山)으로 퇴각했다. 청정부가 진먼을 점령했고 집을 태우고 성을 훼손하며 백성들을 죽이면서 유민(遺民)들을 해안에서 30리 떨어진 곳으로 쫓아냈다. 서민들은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고 진먼은 폐허가 됐다. 또 1674년 정남왕 경정충(耿精忠)이 민(閩)을 점령하고 청 정부를 배반하면서 타이완의 정경(鄭經)과 결합했다. 이 기회에 정경은 다시 진먼으로 되돌아왔다. 1679년 겨울, 청나라 군대가 료우루어(料羅)만을 공격했고 그 다음해 청 수사제독(水師提督) 만정색(萬正色)이 군대를 거느리고 진먼을 공격했다. 명정(明鄭)의 장군 오국준(吳國俊)은 투항했고 정경은 다시 타이완으로 퇴각했다. 명정과 청 정부의 대항은 지역사회의 와해 및 재조합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명정 정권 시기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던 진먼 사람들, 예를 들어 시엔취(賢聚)의 노야등(盧若騰, 1600~1664), 후평강(后豐港)의 홍욱(洪旭, 1605~1666), 푸피안(浦邊)의 주전빈(周全斌, ?~1670) 등이 예전에 살았던 집은 고적 혹은 역사건축물의 자격을 부여받았다. 진먼 특유의 촌락풍사야(村落風獅爺)는 후세에 전해져 복계(復界) 이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민간신앙이 되었다.

청나라 중엽 이전, 진먼에서 무관이 많이 나왔다. 림상문(林爽文) 사건 평정을 도운 채반룡(蔡攀龍, 1738~1798)은 경림(瓊林) 사람이고, 해적을 격퇴한 이광현(李光顯, 1755~1819)은 구닝터우베이산(古寧頭北山) 사람으로, 절강제독(浙江提督), 광동수사제

독(廣東水師提督)을 역임했다. 추량공(邱良功, 1769~1817)은 후보(後浦) 사람으로, 절강 수사제독(浙江水師提督)과 절강수육제독(浙江水陸提督)을 지냈다. 이들은 모두 출중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물들의 공적은 18세기부터 19세기 초 타이완 한인의 사회 발전, 타이민(臺閩) 해상활동, 특히 국가, 지역사회와 해적집단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그 외 타이완해협의 항로를 익숙히 알고 있다는 이유로 17세기 중엽부터 타이완 초기 이주 한인은 대부분 진먼 출신이었다. 예를 들어 팽호군도(澎湖群島), 안평(安平), 루강(鹿港)에는 모두 진먼의 후예가 자리잡고 있었다. 타이완 남부의 안평에는 청나라 강희 22년(1683년)에 ‘진먼관’이 설립되었다. 진먼관은 중부의 루강에는 건륭 52년(1787년), 북부의 명지아(艋舺)에는 가경 10년에 설립되었고, 이민회관과 신앙의 중심이라는 이중적 용도를 겸하고 있었다. 청나라 때 타이완의 중요한 문인 역시 진먼 출신이 많았다. 예를 들어, 과거진사에 합격한 정용석(鄭用錫, 1788~1858)은 본적이 진먼 동계(東溪)이고, 채정란(蔡廷蘭, 1802~1859)은 진먼 경림(瓊林) 그리고 사학자 임호(林豪, 1831~1918)는 후보(後浦)사람으로 팽호 문석서원(文石書院)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서법가 여세의(呂世宜, 1784~1855)는 하문(廈門) 옥병서원(玉屏書院)에 있었다. 이런 밀접한 관계들로 인해 민속학자 린형도우(林衡道)는 진먼을 “타이완 주민의 고향” 중 하나라고 불렀다(林衡道, 1996: 249-319).

3) 명청 시기 진먼 지역사회의 묘사: 『창해기유(滄海記遺)』, 『진먼지(金門志)』, 『신진먼지(新金門志)』부터 『진먼현지(金門縣志)』까지

명나라 융경(隆慶) 2년(1568년)에 완성된 『창해기유』는 진먼의 첫 번째 지방지(地方志) 책이다. 저자 홍수(洪受)는 당시 『동안현지(同安縣志)』가 진먼 지역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다고 하여 ‘기유(紀遺)’라고 불렀다. 책은 모두 열 기(紀)로 나누는데 산천(山川), 건치(建置), 인재(人材), 풍속(風俗), 빈사(賓祀), 본업(本業), 물산(物産), 재변(災變), 사한(詞翰), 잡기(雜記)다. 각 기는 글자 수가 길지 않지만 모두 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진먼의 과거, 왜구 침략, 인사작품, 부제묘에 관한 기록 등이다. 이 책에는 극히 적은 오류가 있지만 이 오류가 책의 중요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책은 진먼 지방지 작성에 참고하는 원본도서가 되었다

(李國祥 等, 1993: 465).

그 외 이 책은 홍수의 정치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다. 그는 당시 부패한 군대와 관리에 대해 “군대가 지키고 있어야 될 곳을 지키지 않고 있다”(洪受, 1970: 8-9)고 지적하고 있었고, 가경 39년(嘉靖 39年)에 왜구가 진면을 점령한 지 50일 지나도 순검사와 천호소에 주둔하는 군대의 출격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洪受, 1970: 74-75). 동시에 그는 민난해방(閩南海防), 진면교육(金門教育)(洪受, 1970: 7-10)에 대해서도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역사사료는 모두 당시 진면의 지역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명나라 중엽 이후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진면지(金門志)』는 청나라 진면의 지방지다. 후보(後浦) 출신의 임옥항(林焜燾)이 집필했고, 그의 아들 임호(林豪)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갔다. 임옥항은 1830년부터 1832년 사이 『하문지(廈門志)』를 편찬했고, 이를 바탕으로 2년간 진면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지만 출판하지 못했다. 1837년 이후 그의 아들 임호가 동치(同治) 12년(1873년)에 『진면지』를 보완·수정하여 지방 관료의 지원을 받아 인쇄에 들어갔지만 광서(光緒) 8년(1882년)에야 출판할 수 있었다. 책은 총 15권이고 지략(域略), 부세(賦稅), 병방(兵防), 직관(職官), 명환(名宦), 선거(選舉), 인물(人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체계적이고 내용 기록이 구체적이어서 훗날 『진면지』의 기반이 되었다.

『진면지』의 완성은 관료신사계급이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지의 수집과 편찬은 그 사회의 주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진면은 공통적인 역사를 가지는 하나의 지역이 되었다. 리종한(李宗翰)의 연구에 따르면 『진면지』는 국가통치를 보조하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대가족을 형성한 지방 향신(鄉紳) 계층의 세력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가치와 이익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국가와 지방 가족이 합작한 결과물인 것이다(李宗翰, 2012: 15-16).

전지 정무(戰地政務) 시기 허여중(許如中)이 편집한 『신진면지』는 1949년부터 1958년 사이의 진면 전역(戰役), 군정 건설(軍政建設)(許如中, 1959)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훗날 각 버전은 다 이 책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묘사 외에 애국주의를 선전하는 것과 군정 건설의 근대화적 성과를 강조했고 전방기지의 군사 동

원과 이데올로기 교화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변해갔다.⁹ 1979년 곽요령(郭堯齡) 등이 편집한 『진먼현지』는 화교 간행물 『현영(顯影)』(江柏煒, 2007)을 참고하여 1920~30년대의 교향과 해외화교 거주지의 정보를 추가하게 되었고, 이로써 ‘화교지(華僑志)’의 내용이 충실해졌다.

4. 대항해(大航海) 시대의 진먼

15세기 서구의 ‘지리적 대발견’은 적극적인 식민지 개척으로 이어졌다. 17세기 이래 서구 제국주의는 서둘러 동아시아로 진출했다. 타이완해협과 민난항로는 중요한 요지였으며, 이에 따라 진먼은 서구인이 만든 지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1670년대 네덜란드인 올퍼트 다퍼(Olfert Dapper, 1639-1690)가 제작한 ‘진샤해도(金廈海圖)’는 이미 장저우(漳州)만과 진샤(金廈)해역을 그려냈다. 이 지도에는 진먼, 샤먼, 리에위, 다단, 얼단 등의 섬이 포함됐는데 모두 민난 언어 발음으로 표기했다(그림 4). 그리고 진먼도(金門島)의 진먼청(金門城), 료우위(料羅) 등 군정 중심을 표기해 두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퓨지 지도 도서관(Pusey Library Map Collection)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대 지도 원본 가운데 하나는 1967년 영국 존 셀러(John Seller)의 『항해도집(航海圖集, Atlas Maritimus or The Sea-Atlas)』이고, 다른 하나는 1703년 존 손튼(John Thornton)의 *The English Pilot*이다. 동인도회사에서 사용하던 이 두 지도는 당시 전 지구의 해역과 항로를 모두 상세하게 표기했다. 동아시아 부분에 오면 진먼의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상세하게 중국 동남연해의 항로를 기록하고 있다. 『항해약사(航海略史, Histoire Générale des Voyages, 1746-1759)』에는 “장저우완 또는 장저우와 샤먼, 진먼도우 해도”를 싣고 있는데, 이 지도에는 섬 이름들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샤먼(廈門, Emowi), 진먼(金門, Quemowi), 리에위(烈嶼, Lishou), 다단(大擔, Toatta), 우위(浯嶼, Gom-tse), 구랑위(鼓浪嶼, Kolong-tse) 등

⁹ 다양한 버전은 다음과 같다: 郭堯齡 等 編, 1979, 『金門縣志』, 金門: 金門文獻委員會; 金門縣文獻委員會, 1968(初版), 『金門縣志』, 金門縣政府; 金門縣文獻委員會, 1979(初版), 『金門縣志』 重修版(上, 下 兩冊), 金門縣政府; 金門縣文獻委員會, 1992年(初版), 1999年(初版二刷), 『金門縣志』 增修版(上, 中, 下 三冊), 金門縣政府.



그림 4 네덜란드 사람 윌퍼드 다퍼가 제작한 진사해도(金廈海圖)

이 있다. 이 지도들은 현대 지도에 상당히 근접했고 진먼과 주변 섬이 민난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그림 5).

진먼이 남긴 유·무형 문화재는 매우 풍부해서 최근 30여 년간 국내외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건축사 연구 영역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초로 이건량(李乾朗)이 1978년 출판한 『진먼민거건축(金門民居建築)』이라는 책이 있다. 그는 진먼에서 군복무하는 기간 초보적인 현장조사와 소모로 진먼의 대표적인 합원(合院)과 서양 건축물(洋樓建築)의 공간적 미학을 소개했다. 이 책은 전쟁 지역인 진먼이 완전하게 마을을 보존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책이다(李乾朗, 1978). 1990년대 마을 공간 연구 중심의 석·박사논문은 진먼과 평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곳의 이민의 계보를 정리했다. 또한 생산방식, 기후 및 지리적 조건, 사회관계 등의 차이에 따라 마을 공간의 구성, 건축 형식, 문화지경(文化地景) 등의 같고 다른 점을 보여주었다(江柏煒, 1994; 吳培暉, 1997 등). 동시에 어떤



그림 5 장저우완 해도(漳州灣海圖), 벨랭(Jacques-Nicolas Bellin, 1746~1759)

논문에서는 진먼 지역의 장사(匠司)를 주제로 금기와 민속문화의 관계를 다루는 것도 나타났다(江錦財, 1992; 張字形, 2001 등).

두 번째 부분은 종족 연구, 지역풍속을 중심으로 한다. 천빙롱(陳炳容), 양티안허우(楊天厚)는 각각 진씨(陳氏)의 대종영천당(大宗穎川堂) 등 육종사(六宗祠)와 진(陳)·채(蔡)·허(許) 세 성씨 가족의 종사제례(宗祠祭禮)를 주제로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와 진먼의 제사의식을 비교하여 진먼 종족의 응집된 문화역량을 보여주었다(陳炳容, 2008; 楊天厚, 2011). 지앙뷔웨이(江柏煒)는 역사에서의 가족, 종족과 씨족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진먼 종사(宗祠) 건축의 분포와 현존하는 의식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다(江柏煒, 2009: 364-398). 예견페이(葉鈞培), 쉬즈런(許志仁), 왕지안청(王建成)은 출생례(出生禮), 혼례(婚禮), 수례(壽禮)와 상례(喪禮) 등 생명의례를 포함한 매달의 모든 민속절 풍속에 관해 기록했고 서민생활의 풍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葉鈞培 외, 2000).

세 번째 부분은 중국 학자 왕이(汪毅) 부인이 편찬한 『진먼사고(金門史稿)』를 대표로 한다. 이 책은 박물관의 방식으로 쓰여졌고 1949년 이전의 진먼의 자연지

리, 건치 연혁, 정치와 군사투쟁, 이민과 개발, 사회경제발전, 재정수지, 과거와 교육, 언어와 문학, 민간신앙과 습속을 기록하고 있다. 대다수 사료는 위에서 언급한 문헌 이외 『천주부지(泉州府志)』(1763년), 『마향청지(馬巷廳志)』(1776년) 등 지방지를 참고했다(汪毅夫 외, 1999). 그러나 이는 과도하게 투쟁적 역사관에 기초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진먼과 대륙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서술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III. 교향으로서의 진먼: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집단, 자본과 문화 전파

1. 해외 이민의 증가

하나의 지역사회로서 진먼에서 400~500년간 나타난 하나의 사회현상은 바로 해외 이민이다. 지방지에 따르면 명나라 융경(隆慶), 만력(萬曆) 이후, 즉 1567년 이후 이미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존재했다(汪毅夫 외, 1999). 족보의 기록을 보면 최초 이민자가 17세기 중엽에 등장한다.¹⁰ 그 외 필자가 마리우지아산보산(馬六甲三寶山: Bukit China)에서 현장조사할 때 7개 진먼 사람들의 무덤을 발견했고 연대가 가장 이른 것은 청나라 건륭황제 37년, 즉 1772년 진갱(陳坑)의 진이모(陳異謀)의 무덤이었다. 일본 나가사키 후쿠사이지(福濟寺, 1628년 창건)에는 현재 339개의 민난 선원 위주의 묘비가 있다. 최초의 진먼 사람 묘지는 1748년의 ○석옥(○石旭, 성씨 분별 불가)의 묘지다.¹¹ 다시 말하면 16~18세기 중엽 이미 해외로 나가 생계를 도

10 『우장 루린 채씨 족보(涇江瓊林蔡氏族譜)』(1821년)에 따르면 조상들이 이 시기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캄보디아를 가고 오고 하다…(往東埔寨, 卒東埔寨…)”는 구절이 있다. 또 “18대 차이스전(蔡士振)의 장남이 캄보디아에서 출생했다…(명나라) 정묘년에 귀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로부터 해외로 이민 간 시기는 1687년 이전일 것으로 추측한다(蔡尚溫 主編, 1992, 頁 71).

如『涇江瓊林蔡氏族譜』(1821年)記載族人“往東埔寨, 卒東埔寨…”, “十八世(蔡)士振長子諱竈字允慎, 生於東埔寨, …(明)丁卯年尋回”等, 推估出洋時間早於1687年以前(蔡尚溫 主編, 1992, 頁 71).

11 ‘후쿠사이지(福濟寺)’의 339개 묘비 중 128개는 문자를 확인할 수 없다. 기타 211개 중, 84개는

모한 진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19세기 중엽부터 진면의 해외 이민 규모는 확대되기 시작했고 20세기 중엽 전후까지 이어졌다. 진면의 해외 이민 추세는 역사적으로 크게 네 번으로 그 주요한 시기를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860년대다. 당시 “항로가 잘 되어 있고 진샤가 가깝고 서로 지원하고 이끌었으며 남양으로 가는 사람은 강을 건너는 것과 비슷해 남양을 외사로 생각했다(航路暢通, 金廈咫尺, 相互援引, 其往南洋者, 乃如過江之鯽, 直視南洋做外舍焉).” 경작지가 부족하고 연이어 재해가 닥쳐 발생한 경제 문제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게 된 내적 요인이었다. 그 외 1860년 ‘베이징조약’에 의해 해외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 합법화가 되었고 영국의 라펠스(Thomas Stamford Raffles) 경이 1819년 싱가포르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중상주의적 자유항 정책을 실시하였고 진면의 많은 농촌의 잔여 노동력을 유인해 해외로 나가서 살게끔 했다. 물론 “돌아오는 자는 백 명 중 한 명 혹은 두 명이었고, 이윤을 챙긴 자는 천 명에 두 명, 세 명도 안 된다”고 해도 이민 흐름은 막지 못했다.

두 번째는 1912년부터 1929년 사이다. 당시 남양은 중국 본토에 비해 상업이 발달하고 치안이 좋아 진면의 많은 남성들을 흡인했다. 그 중 1915년부터 1929년 사이 진면의 인구는 41.45%(남성은 43.35%, 여성은 39.0%)가 감소했다.¹² 1929~30년대 세계 경제 불황이 오면서 남양도 그 여파를 받게 되었다. 백은과 미국 화폐의 환율은 계속 떨어졌고 당시 해외자금 환전에서 은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화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일부 교민들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남양으로 이민 가는 것은 영국 식민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었다. 1928년 싱가포르에서 ‘이민입국제한조례(Immigration Restriction Ordinance)’를 제정하여 많은 이민의 유입을 통제했는데, 이는 진면에 실업과 경제적 압력을 야

본적이 진면이고, 83개는 통안(同安, 당시 일부분 진면 사람들이 통안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다녔기에 이 중에도 진면 사람이 있을 것이다)이었다. 128개 미확인 자 중에도 진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즉, 일본 막부시대, 쇄국적인 선박무역 시대에, 진면선원(金門船員) 일부분은 그 중에 참여했던 것이다.

¹² “민국 4년, 1915년 현을 설치 이후 인구조사 데이터는 믿을 만하다. 당시 총 10보(保), 167향(鄉), 18180호(戶), 남성은 44141명, 여성은 35216명이다. 민국 18년, 1929년 전현에는 8404호(戶)가 있고 남성 25005명, 여성 21462명 있다.”(金門縣政府, 2009: 43)

기했다.¹³

세 번째 시기는 1937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의 중국 침략이다. 1937년 10월 일본은 진먼을 점령하여 민공(民工)¹⁴을 모집하고, 물자 및 부분적인 토지를 강제적으로 징수했는데, 이는 1945년 일본이 투항할 때까지 이어졌다. 청·장년들은 일본군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남양의 친지한테 도피했다. 이를 현지에서 ‘저우르번서우(走日本手)’라고 불렀다. 이 흐름이 그 전의 이민과 다른 점은 (주요 원인이)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전쟁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Wang, 1991: 79-101).

네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이다. 한편으로는 국민당 정부가 치안 문제를 다스리는데 역부족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당 정부가 남방 지역에서 징병해서 국공전쟁에 지원했다. 이에 따라 교민들은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고, 많은 징병 대상자들이 남양으로 도망갔다. 1949년 이후 진먼은 국공대치, 세계냉전의 전방기지가 되었고 교민 집거지와 부분적으로 왕래가 있었지만(소량의 외화가 특수한 경로를 통해 고향으로 부쳐졌고, 1954년 9·3 폭격전, 1958년 2·3 폭격전 당시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지의 교민들은 자신의 가족을 데려가기 시작했다), 이후 이민은 타이완 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외 이민의 기제는 일반적으로 ‘연쇄 이주(chain migration)’라고 불린다. 즉 동향, 동족이 심지어 종사하는 직업도 동일한 곳으로 이민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리에위(烈嶼)의 사람들이 브루나이로, 구닝터우 리(古寧頭李) 씨는 말레시아 반도로, 주산 설(珠山薛) 씨는 필리핀 이리안(依里岸)으로, 안치(安歧)는 타이로, 수이터우(水頭)는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으로 이주했다. 비록 진먼 화교는 대부분 자유이민이었지만 이들이 이주지역을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많은 경우 그 지역에 친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 왜냐하면 후기 신화교는 반드시 먼저 이민 온 동향을 의지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일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궈우(王廣武)가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교거사회집단(僑居社

¹³ 이 조례는 1930년부터 엄격히 실시되었고, 그 해 8월 1일, 성인 남성 화인 이민의 월 배정 인구는 6,016명이고 그 후 해마다 줄어들었다. 1932년 후반 5개월에는 1,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여성과 12세 이하 아동은 그 인구통제를 받지 않았다(Settlements, 1934).

¹⁴ 농민 노동자를 하는 말. 강제로 백성들을 모집해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역주).

群, sojourning communities)’이지 ‘정주사회집단(定居社群: settling communities)’은 아니었다. 이것은 또 유교문화의 ‘낙엽귀근(落葉歸根)’의 문화 관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또 교민 집거지의 불안정성, 안전하지 못한 정치현실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그러나 역사의 현실은 2대, 3대 이후 그들의 생활은 해외에서의 ‘낙지생근(落地生根)’으로 변화했고, 이 화교는 해외 화인으로 변화된다.

2. 교향사회(僑鄉社會), 화교가족 및 해외회관(會館) 연구의 전개

이런 역사적 배경 아래 교향사회, 화교가족, 해외회관 연구는 새로 부상하는 연구 영역이 되었다.

소위 ‘교향(僑鄉)’은 현재 보편적으로 “역사 및 경제적 원인에 기초한 화교와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도시와 농촌을 가리키고, ‘화교의 본고향’을 의미한다.”(潘翎 主編, 1998: 27)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객관적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민 혹은 귀교, 교민가족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 정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사회의 주요한 경제적 원천이 교민 송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양적 지표로부터 보면 진먼은 확실히 교향이다.

지앙뵈웨이는 진먼 교향사회 연구 영역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했다. 우선 그는 교향의 정의를 심화시키려고 했다. 위에 말한 두 가지 개념 외에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과 사회적 연결망 관계(relationship of social network) 등 질적인 지표를 추가했다. 전자는 이민 간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정체성, 해외에서 종족 동향 회관을 만들어 고향 사무에 참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후자는 교민들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편지로 연락하며(송금 포함), 교민 간 행물을 교민 집거지 네트워크 관계에 보내는 것이다(江柏煒, 2010: 7-10). 진먼의 교민 간행물은 ‘분산가족(分散家族, dispersed family)’, ‘분산씨족(分散氏族, dispersed clan)’과 ‘분산사회집단(分散社群, dispersed community)’의 내부관계를 유지해 주고, 공동체의식을 구축하는 중요한 매체다(江柏煒, 2005).

그리고 지앙뵈웨이는 화교 사회집단이 어떻게 막강한 경제적 실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변두리 집단으로부터 상인신사계층으로 변했는지 구

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청나라 말기부터民国 시기 교향사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연납제도(捐納制度)를 통해 부유한 화교들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청 정부에 대한 기부(연수(捐輸))를 통해 직함(名銜)을 샀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한편으로는 금의환향 및 가문을 빛내겠다는 소원을 이루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향사회와 해외 화인사회에서의 높은 사회적 위치를 마련하였다. 싱가포르 부제묘(孚濟廟: 진면회관의 전신)의 창시자이자 첫 총리직을 맡은 서산전(西山前)이 본적인 리스타(李仕撻, 1839~1911)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또한 교상(僑商)은 종족의 공공사무에 참여했는데, 그들은 절을 고치고 다리를 놓고 길을 수리하며, 학당(學堂)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치안과 방어 등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재건했다. 진면의 주요한 몇 개 절, 예를 들면 허우푸청 황묘우(後浦城隍廟), 우묘우(武廟), 리에위 동린링 중묘우(烈嶼東林靈忠廟) 등은 민국 시기¹⁵ 이래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반도, 인도네시아 등 교상들의 후원으로 몇 차례 수리가 이루어졌다. 본적이 리에위쌍커어우(烈嶼雙口)이고 브루나이에 살며 ‘천맹공(天猛公)’ 칭호를 수여받은 린더푸(林德甫)가 가장 전형적인데, 리에위 섬 전체 39개의 절 가운데 린더푸가 후원했다는 기록이 남은 곳이 23개나 된다.

근대 민웨(閩粵) 화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건물을 짓는 흐름이 거세지면서 물질문명사는 교향 연구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먼저 진면산허우(金門山后) 출신이고, 일본 고베에 거주하는 상인 왕가(王家)와 복흥호(復興號)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두 세대가 1876~1900년간 고향에 돌아와 16개의 건물을 짓고, 1개의 학당, 1개의 종족제사 건물을 지어 종족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청나라 말기 화교 종족주의의 실천과 공동체 유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江柏樺, 2003). 그리고 진면 서양 건물에 관한 연구는 건물의 평면구조, 입체형식과 계보에 대해 정리했다. 외관 장식의 상징적 표현에 관한 토론을 통해 이들 건물의 ‘혼종적 근대성(hybrid modernity)’은 근대 화교들이 기타 지역사회에 대한 하나의 문화적 상상 및 실천이라는 것과 식민자를 주체로 하는 ‘식민지 근

¹⁵ 청 정부가 멸망한 뒤 1912년 건립된 공화국을 가리킨다. 현재 타이완은 여전히 이 명칭을 쓰고 있고, 대륙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되기 전 시기만을 민국 시기라고 부른다(역주).

대성(colonial modernity)의 작동과 다르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江柏煒, 2012).

시야를 확대해 보면, 진먼 출신의 화교가족, 상호(商號), 향단(鄉團)과 회관을 연구 주제로 하는 것은 진먼 지역 문화 연구의 넓이를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치카와 노부치카(市川信愛), 주더란(朱德蘭), 쉬즈핀(許紫芬) 등 학자들이 장기간 주목한 일본 나가사키에 이주한 타이이호(泰益號) 상업문서 연구는 상업무역부터 문화, 수지기록부(收支簿記) 등 서로 다른 차원으로부터 동북아 화상(華商) 무역체계의 건립에 관해 분석했다. 그 중 주더란(朱德蘭, 1997)의 연구에 따르면 타이이호가 어떻게 지연, 혈연, 직업관계의 합자 혹은 가족주의 및 독특한 정보 네트워크를 운용하여 경영과정을 확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사회자본 혹은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화상의 경영 모델은 아시아 근대 경제사 연구의 발전에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럽과 미국의 기업 흥망성쇠에 관한 비교연구를 위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타이이호의 가족은 진먼신터우의 천귀량(陳國樑)과 천스왕(陳世望)이다. 그들은 당시 인원, 자금 양 면에서 나가사키와 진먼 사이에서 밀접하게 활동했는데, 여기에는 혼인대상(聯姻對象)도 포함된다(江柏煒, 2012).

그 외 지앙뷔웨이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각 지역의 진먼 사람들의 향단(鄉團)과 회관(會館)을 고찰하고 그와 관련된 저서 2권을 출판했다.¹⁶ 그 중 싱가포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저자가 1870년대부터 싱가포르 진먼 사람들의 지연, 혈연과 업연(業緣)을 중심으로 하는 향단이 나타났고, 100여 년간 적어도 36개의 크고 작은 다양한 종향회관(宗鄉會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부류는 ‘지우빠향(九八行)’ 무역상호의 상인계층인데, 그들은 ‘우장푸지묘우(浯江孚濟廟)’와 ‘진먼회사(金門公司)’를 설립했고, 1927년부터 ‘진먼회관(金門會館)’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렀다. 또 한 부류는 싱가포르 하천 지역에 산재한 선박운수에 종사하는 노동자계층이다. 그들은 34개의 구리지엔(估厘間 또는 苦力間, 노동자조직)을 조직했는데, 분쟁을 처리하는 총회관인 ‘진우장(金浯江)’을 만들어 이후 ‘우장공회(浯江公會)’로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된다. 이는 상업 네트워크의 연락, 동향우의를 촉진하고, 서로

¹⁶ 江柏煒, 2007, 『海外金門會館調查實錄: 馬來西亞篇』, 金門: 金門縣文化局; 江柏煒, 2012, 『星洲僑民: 新加坡金門人的宗鄉會館』, 金門: 金門縣文化局.

돕고 새로 온 화교를 돌보는 역할을 한 것 외에, 이 향단들은 고향의 신명(神明)을 교민 집거지에 모심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과 신앙을 기탁할 수 있게끔 했다.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상인계층은 적극적으로 고향의 공공사무에 관심을 갖고 진면의 근대화 과정을 이끌었다. 그들은 1915년 독립적인 현을 설치하는 정치운동으로부터 1920~40년대 지방치안, 교통운수에도 원조를 했다. 바꿔 말하면, 이런 현장조사 자료에 기초한 분석은 상마(星馬) 화인들의 ‘방언집단(方言群) 정체성’(麥留芳, 1985)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계층의 구분 및 사회집단 이익을 공고화하는 것이 지연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기본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해외회관은 고향사회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토론을 통해 근대 진면 고향의 역사적 이미지를 이해하고, 특히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집단, 자본 및 문화의 운용 및 작동방식을 알 수 있다.

IV. 전방(前線)으로서의 진면: 냉전 하의 지역사회 및 ‘탈군사화(去戰地)’ 글쓰기

1. 냉전 중의 열구(Hot Zone in the Cold War)

제2차 세계대전 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투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비록 미국의 조정으로 대화를 하고 협정을 맺었지만 쌍방은 1946년 7월 내전을 일으켰다. 1949년 4월 100만 공군(共軍)¹⁷이 장강을 넘어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우한(武漢), 창사(長沙)를 공략하고 스촨(四川), 광시(廣西) 등 지역까지 밀고 나갔다. 10월,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했다. 장제스(蔣介石)는 국민정부를 타이완으로 옮겨갔다(李永熾 監修·薛化元 主編, 1990: 78).

1949년 10월 24일 전, 차우산(潮汕)으로부터 온 후리안(胡璉) 장군이 지휘하는 제12병단이 진면에 도착했고 방어를 책임졌다. 당일 저녁 약 2만여 명의 공군이

¹⁷ 공산당 군대를 가리킨다. 이하 동일하게 공군으로 공산당군대를 가리킨다(역주).

진먼 서북 측 구녕터어우(古寧頭)로 상륙을 강행했고, 국군(國軍)¹⁸과 56시간 넘게 치열한 격전을 펼쳤다(金門縣政府, 2009: 99-101). 국군은 내전 이래 보기 드문 승리를 거뒀고, 잠시나마 공군의 ‘진먼을 공략하고 타이완을 해방하자’는 군사행동을 저지함과 동시에 타이완에 있는 국민정부가 숨을 돌릴 기회도 주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의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은 타이완해협을 ‘중립화’시켜 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거나 중화민국이 중국대륙을 공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에 해결하지 못한 중국 내전 문제가 국제화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이는 더 큰 규모로 세계냉전사의 한 부분이 되어갔다(Szony, 2008: 25).

그러나 타이완해협의 중립화는 진먼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었다. 오히려 진먼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었다. 미국은 진먼을 타이완해협의 보급선으로 생각하고 협동방위를 했다. 이어 1950년 7월의 다단(大膽) 전투, 1954년의 9·3 전투, 1958년의 8·23 포격전, 1960년 6·17 포격전, 6·1 포격전¹⁹ 등 진먼은 여러 차례 전쟁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었다. 8·23 포격전 이후 ‘단타쌍부타(單打雙不打, 홀수 날 포격하고 짝수 날 포격하지 않음)’ 포격은 1978년 12월 15일 미국과 중국의 수교 전날에 가서야 멈춤으로써 무려 2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종식이 군사통치체제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1992년 11월 7일이 되어서야 진먼은 정식으로 전지정무(戰地政務)를 해제했는데, 이것은 무려 43년 만의 일이었다.

진먼-민난 교향의 섬은 20세기 중엽부터 국족(國族)의 역사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자유와 공산 진영’의 충돌 속에서 ‘냉전 중 열구(冷戰中的熱區)’가 되었다. 장제스는 미국 매체에 “진마(金馬)가 없으면 타이핑(台澎)도 없고, 타이핑이 있기에 대륙도 있다”(1955년)고 했고, “진먼, 마주(馬祖)는 타이핑의 전초기지이고, 또 자유세계가 태평양을 공고히 하는 생명선이다”(1961년)라고 했다. 국방행정원

¹⁸ 국민당 군대를 가리킨다. 이하 국군으로 동일하게 가리킨다(역주).

¹⁹ 6·17 포격전, 6·19 포격전은 1960년 6월 17일과 19일,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타이완 방문 전후 중공이 진먼을 포격하는 것을 통해 위시하려 했던 것이다. 섬 전체에 떨어진 포탄은 17일에 만 8만 5900여 개다. 19일 다시 8만 8789개를 쏘았고 민간인 7명이 사망했고 41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택 200여 채, 학교 5개, 병원 1개가 파손되었다(金門縣政府, 1992: 165, 1252).

장 위홍궈(俞鴻鈞)은 “진먼 및 마주의 방위는 타이완의 방위에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전선 전반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1951년)고 지적했다.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또 “진먼 및 마주 연해의 섬은 중화민국에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고, 이것은 베를린이 서방에 대해 갖는 중요성과 비슷하다”(1958년)고 선언했다(金門縣政府, 2009: 116, 223-224).

사실상 1954년 제1차 타이하이(臺海) 위기 이후 미국은 진먼의 전략적 지위를 중시하고 원조하기 시작했다. 미국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은 1954년 9월 9일 중국 근린도서(The Chinese Offshore islands)에 관한 최고기밀문건(2000년 8월 30일 공개함)을 작성했다. 이 기밀문건은 당시 진먼의 국군과 샤먼의 공군(共軍)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었다. 부록에는 국군과 공군의 전체적인 군사력에 대한 비교분석도 있다. 38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은 진먼 방어에 대한 건의를 제외하고 있으며,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거나 타이하이 형세에 개입할 때 중요한 참조자료가 되었다. 이 자료는 구체적인 병력 데이터, 예를 들어 당시 국군은 4만 2,100명이고 유격대는 6,000명이고 주민은 적어도 5만 명 있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중 당시 군대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문건이고, 동시에 미국의 협방에 관한 기록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군 고문단이 3대의 105cm의 유탄포(榴彈砲)와 40cm의 방공 기관총을 운반해 왔다는 것이다(CIA, 1954). 그리고 진먼에서 있었던 9·3 포격전은 직접적으로 1954년 3월 중미공동방어조약(Sino-American Mutual Defense Treaty)을 체결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중미공동방어조약 제6조의 “...소위 ‘영토’ 및 ‘영역’, 중화민국은 타이완 및 평후 제도를 가리키고, 미국은 자기 관할의 서태평양에 속하는 여러 섬을 가리킨다”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진먼 섬과 마주 섬의 애매한 역할을 설명해 준다. 샤먼과 푸젠의 섬에 인접한 이 두 개 섬은 공산당 집단의 지연 정치 및 군사 전략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법률상 미국의 보호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조약 내용에서도 국민당 정부로 하여금 타이완, 평후 혹은 기타 섬에서의 무력 사용은 미국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했다. 조약은 하나의 공통적인 협의사항인데, 한편으로는 공산당의 확장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내전의 충돌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1958년 8·23 포격전 이후 타이하이 정세에 관한 분석보고에서 미국이 지닌 진면과 마주에 관한 법률의무를 설명하고 있고, 또 국민당 정부가 외부 섬을 이용해서 군사행동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제한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진마를 제외한 섬에 대해 법률적 의무를 지니지 않고 있고, 국무부의 방위 범위가 진마 외의 섬(外島)을 포함하게 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관점은 방어조약 제6조에서 이미 국민당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타이핑(臺澎, 타이완과 평후 섬) 방위에 있어서 필요 시 상관 영역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 받는다.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대륙 연해 섬에 대해 마주와 진면을 통해 경상적으로 군사행동을 취하고 있다. 외도(外島)는 (국민당 정부의) 침략의 발판이고 (국민당) 군대가 샤먼과 푸저우를 억제하는 최적의 거점이다. 국민당 정부가 소유한 공군은 모두 타이완에 있다. 진면에는 공항이 하나 있으나 대륙에 대해 빠라를 뿌리고 정찰기를 내보내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사용하지 못한다. 공동방어조약 하에 국민당 정부는 대륙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Parsons, 1958/08/29).”

1958년 전쟁이 발발한 일주일 후(8월 30일)에 한 문건이 미국의 협방 범위를 설명해주고 있다. “미국 해군부는 당국의 최고지시를 받고 제17함대를 파견하여 타이완 본도부터 마주열도, 진면열도에 이르는 국민당 정부의 후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진마 보급선의 안전을 유지한다. 마주열도는 바이산(白山), 베이간탕(北竿塘), 마주산(馬祖山), 시쥐도우(西莒島), 동쥐도우(東莒島)를 포함하고, 진면열도는 다진면(大金門)과 쇼우진면다우(小金門島)를 말한다. 기타 섬은 관할 범위 밖에 있다.”(Navy Department, 1958/08/30) 같은 날 미국 국무부는 영국 장관 후드(Viscount Hood)에게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타이완을 협방하고 외도(外島)를 지키고 공산당을 봉쇄하는 것은 필요한 군사적 행동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산당 측의 교활한 제안이다. 그리고 국무부도 이런 국면이 확대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국민당 공군 부대가 중국 공산당 영역에 들어가면 중국 공산당은 필연코 한국전쟁 시기의 ‘특히

보호구(privileged sanctuary) 문제와 같은 국면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미국의 개입이 없이 국민당 군대의 비행기를 타이완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외도 문제는 국민당 정부 지도자가 이 섬들과 타이완 및 국민당 정부 자신의 운명과 연결시켜 보기 위한 하나의 병적인 심리구조(psychopathic frame of mind)다. 이 때문에 공산당은 이 섬들을 탈취하고 국민당 정부의 해군과 공군을 접수하려 할 것이며, 심지어 상당히 큰 규모의 육군도 접수하게 될 것이다. 타이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미국은 이런 상황을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Department of State, 1958/08/30)

간단히 말하면 위에서 기술한 미국 문건으로 볼 때 진먼, 마주는 양안의 군사적 대치의 외도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국제 지연 정치, 세계냉전에서 주목받는 지점이다. 진먼은 타이완, 중국, 미국 그리고 기타 국제 강대국이 서로 대항하고 타협하는 도구이고 나아가 군사적 통제의 섬인 것이다.

2. 전시체제 아래의 지역사회

냉전은 국제적 형세의 충돌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치, 경제 및 의식 형태 교화는 군사통치의 중요한 내용이다. 진먼에서 군사적 부서 이외 우선적으로 1915년 이래 설립되었던 진먼 현정부를 폐지하고 군사관할구역으로 설립하여 진둥(金東), 진시(金西), 리에위(烈嶼) 구(區)는 군사, 민정, 총무 등 사항을 통일적으로 관리했다. 1950년에는 진먼행정공서(金門行政公署)로 체제 바꿈을 했다. 1953년 비록 현치(縣治)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군사적 관리의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 1956년 ‘전지정무실험구(戰地政務實驗區)’로 정해졌고, 전지정무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아래로 진먼 현정부 및 소속 단위(물자공급처, 진먼술공장, 진먼전력공사, 서원소금공장, 정기중화일보사, 진먼고등학교, 진먼농동작학교 등 단위)를 관할하면서 일원화된 통치와 통제를 강조했다. 1960년 이후 “진먼을 삼민주의 모범 현으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963년 ‘진먼삼민주의모범 현건설강요(金門三民主義模範縣建設綱要)’를 완성하며 3차에 걸친 4개년 경제 건설의 기획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치(管), 문화(教), 경제(養)와 군사(衛)적 건설을 발전시켰다. 바꿔 말하면 진먼은 특수한 ‘군사적 근대성(militarized modernity)’의 구

축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이는 곧 하나의 군사통치 및 전쟁준비로 필요한 것에 의해 발전된 근대화 과정이다(金門縣政府, 1992: 567-568).

지역사회는 군에 의해서 동원되었다. 민방자위대가 곧 그 사례다. 1953년 진먼 현에 민방지휘소가 생기고 각 향진에서는 민중임무대가 만들어져 사회 치안을 지키고 군사작전을 지원했다. 1959년에는 ‘경정(警政)’과 민방을 하나로 합치고 ‘경찰을 근본으로, 민방을 보조로’ 하였고, 사회동원 역량을 확대했다. 1968년에는 나아가 ‘호경합일(戶警合一)’을 이루고 사회통제를 강화했다. 1971년에 민방총대(民防總隊)로 고쳤고, 1973년에 또 자위총대(自衛總隊)로 개명하고 총대장(總隊長) 한 사람을 두었다. 향진公所(鄉鎮公所)는 자위대대(自衛大隊)를 설립하고, 행정촌(行政村)은 자위중대(自衛中隊)를 설립하고, 전투촌(戰鬥村)은 자위구대(自衛區隊)를 설립했다(金門縣政府, 1992: 1268). 18세부터 55세의 남성은 신체검사 합격 이후 연령에 따라 조로 나뉘어져, 기관, 사단(社團), 학교, 창고, 자위 전투대로 편성된다. 자위총대의 직속 부대는 경위(警衛), 위생, 통신, 술공장, 도자기중대 및 진(金, 진먼) 중학생, 부녀, 유사(幼獅), 차량, 배, 뵤마(驃馬, 노새) 대대(大隊)로 편성되었고, 나중에 실제적 수요에 맞게 통신, 위생, 주류공장, 도자기공장, 자동차, 어선 등 6개 중대로 축소해서 재편했다. 자위대 성원은 정기적으로 전투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는 간부 훈련, 자위부대 훈련, 직원 전투 훈련, 학생 훈련 및 전업 훈련으로 나뉜다(金門縣政府, 1992: 1265-1268). 바꿔 말하면, 국가역량이 민간사회를 꿰뚫고 있었고 연령, 성별과 직업에 따라 (주민들을) 편성하고 훈련시키고 거기에다가 갖가지 군사임무를 부여했다.

지역신앙은 민속활동과 함께 억압받았다. 1980년대 이전 군에서 공포한 ‘춘절(음력설) 기간 민중이 태무산에 올라가 향을 사르고 참배하는 것에 관한 유관 규정(春節期間民眾上太武山進香有關規定)’에서 해인사(海印寺)는 춘절, 중원절 혹은 중앙절과 같은 큰 명절 외 나머지 기간에는 모두 봉쇄한다고 규정했고, 일반 민중은 마음대로 산에 올라갈 수 없으며 개방한 기간에 금방부(金防部)가 노선, 차량 및 촬영에 대해 일정한 관리를 한다고 규정했다. 음력 7월 중원푸두(中元普渡)²⁰는 여

20 중화 전통적인 명절이다. 음력 7월 한 달 동안 곳곳에서 행사가 이뤄지는데 푸두라는 의미는 죽은 영혼들이 인간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것을 제사를 지냄으로써 위로하려는 것을 말한다(역주).

표 1 1958~67년 진먼으로 귀환한 화교의 인구 통계

지점 \ 연도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합계
싱가포르	14	17	25	31	43	59	85	104	73	129	580
필리핀	4	5	7	6	8	8	13	12	13	14	90
말레이시아	3	3	4	7	10	8	17	14	12	9	87
인도네시아	4	6	34	31	14	4		3	1	4	101
베트남	2						2	2		4	10
타이						1		2	4	2	9
사바주	2	7	10	11	19	21	45	34	27	22	198
만마							4	2	2	6	14
홍콩					1						1
합계	29	38	80	86	95	101	166	173	132	190	1,090

출처: 李怡來, 『金門華僑志』, 金門: 金門縣文獻委員會, 1971, 197-198.

전하지만, 원래 서로 다른 부락에서 푸두 제사 시간이 달랐지만 전시정무시기(戰地政務時期) 군의 규정에 따라 민간의 푸두 시간은 전부 7월 2일, 16일 및 29일로 정하고 제사를 지내게끔 했다. 위반한 자는 경찰에서 엄하게 다스렸는데 표면상의 이유는 사회풍기를 개선하고 낭비를 없애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사회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의 화교 네트워크와 해외송금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56년 이후에는 화교가 진면에 돌아오거나 화교가족이 출국 신청은 전지정무위원회 및 진면 방위사령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회와 사령부는 심사자격과 동시에 타이완과 진면 사이 군용 운수기 혹은 운수선의 자리 공급까지 담당하고 있었으며, 귀환 교포가 진면에 온 뒤의 접대하는 일도 책임지고 있었다. 현재 알려진 1958~1967년간 화교의 진면 귀환 통계를 보면 1949년 이전처럼 활발하지 않았다(표 1 참조). 1949년 이후, 진면 민신국(民信局)은 19개에서 5개로 줄었다(金門縣政府, 1992: 1110). 통계에 따르면 전에는 진면의 매년 평균 송금이 약 3,000만 원²¹이었는데 1950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300만 원, 1953년 약 1,500만 원, 1956년 약 830만 원 정도 되었다(許如中, 1959: 483-484). 진면 방위사령부의 1대 사령관 후리안(胡璉) 장군의 회고에 따르면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는 “진면이 전쟁터로 난리였

21 당시 타이완 지역의 화폐단위다(역주).

고, 전쟁 승리 여부가 판가름이 나지 않았던 때였다.” 당시 여러 노인들이 자살을 했는데, “처음에는 군기와 관련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송금이 도착하지 않아서 살기 힘들어 자살을 선택했다”고 한다(胡璉, 1976: 67). 진먼 상회(商會)는 이 일로 인해 좌담회를 가지고, 송금 경로 해결에 관련해 토론했다(『正氣中華報』, 1951/4/11).

3. 전시 연구의 새로운 추세: 사회사 추세

전지 생활 경험은 몇 세대에 걸친 진먼 사람들의 집단기억과 공통된 역사이고 군사통치는 상당히 지역사회의 자주적 역량을 억압했었다. 1992년 11월 7일, 진먼과 마주의 전지정무를 해제하자마자 진마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연구자들이 지나간 역사를 성찰하기 시작했다. ‘진먼학(金門學)’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 ‘진먼학’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96년이었는데, 당시 진먼 현정부의 지지 아래 양수칭(楊樹淸)의 책임편집으로 5년 사이에 『진먼학총서(金門學叢書)』 30권이 발행되었다.²² 주제는 매우 방대했는데 역사, 민족, 언어, 문학, 전쟁사, 촌락건축, 지질학 등이 포함되었다. 저자들은 타이완에 있는 진먼 사람과 현지 문사 작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이는 타이완에서 1980년대 나타난 향토운동(鄉土運動), 1990년 중엽의 커뮤니티(社區) 만들기 운동보다 조금 늦었고, 많은 출판이 엄격한 학술저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장기적 군사통치의 사회억압에 대항하는 문화운동으로서, 또 ‘타이페이/진먼, 중심/변두리’에 대한 사고를 담은 문화적 책략으로서 『진먼학총서』는 중요한 역사적 가

²² 출판된 것은 다음과 같다. 楊天厚·林麗寬, 1996, 『金門歲時節慶』與『金門俗諺採擷』; 陳炳容, 1996, 『金門風獅爺』; 李錫隆, 1996, 『金門島地采風』; 張榮強, 1996, 『金門人文探索』; 吳培暉, 1996, 『金門聚落風情』; 張火木, 1996, 『金門古今戰史』; 陸炳文, 1996, 『金門祖厝之旅』; 唐蕙韻, 1996, 『金門民間傳說』; 楊樹淸, 1996, 『金門族群發展』; 楊天厚·林麗寬, 1997, 『金門殯殮儀典』與『金門婚嫁禮俗』; 顏立水, 1998, 『金門與同安』; 李錫隆, 1998, 『金門島地漫步』; 楊樹淸, 1998, 『金門社會觀察』; 吳啟騰·林英生, 1998, 『金門地質地貌』; 吳培暉, 1999, 『金門澎湖聚落』; 葉鈞培, 1999, 『金門辟邪物』; 楊天厚·林麗寬, 1999, 『金門寺廟巡禮』; 楊樹淸, 1999, 『金門影像記事』; 徐志仁, 1999, 『金門洋樓建築』; 洪乾祐, 1999, 『金門話考釋』; 黃振良, 2001, 『金門古井風情』; 張榮強, 2001, 『金門青嶼社』; 楊清國, 2001, 『金門教育史話』; 洪春柳, 2001, 『金門島居聲音』; 楊樹淸, 2001, 『金門田野檔案』; 楊天厚·林麗寬, 2001, 『金門高粱酒鄉』等。

치를 지니고 있다. 2005년 5월, 진먼의 중·소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진먼학 연구회(金門學研究會)’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연구는 통상적인 진먼 전쟁사 연구에 집중되었고 서로 다른 학문 분야 간의 이론적 사고가 부족했다.²³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진먼 전쟁사 연구는 주요하게 군의 관점, 국족(國族)²⁴의 입장에서 전쟁사건을 진술하면서 적아(敵我) 쌍방의 전략적 배치 및 전술 응용에 관심을 두고 군대의 접전 과정의 세부내용에 미친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반공 이데올로기와 애국주의를 선전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국방부 사정처(國防部史政處)의 『진먼전역(金門戰役)』(1957), 국사관(國史館)의 『진먼구닝터우저우산딩부다오의 전쟁사료초집(金門古寧頭舟山登步島之戰史料初輯)』(1979), 그리고 『진먼구닝터우저우산딩부다오의 전쟁사료속집(金門古寧頭舟山登步島之戰史料續輯)』(1982) 등이 있다. 서방 저작 중에는 진먼이 미국외교정책사, 미·중·타이(美中台) 관계사 및 리얼리즘(realism), 군사위협(deterrence)과 벼랑끝전술(戰爭邊緣策略, brinkmanship)의 이론 연구 과제에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다.²⁵ 그러나 이런 토론 아래 진먼은 단지 국제 지연 정치(國際地緣政治)와 전략 가치를 지닌 지리적 명사일 뿐, 하나의 지역사회가 아님을 볼 수 있다.

사회사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일부 학자는 국족, 정부 당국의 시야에 국한되는 것을 벗어나 지역사, 미시사(微視史)에 주의를 돌리고 있거나 서로

²³ 회의 대표인 타이완대학 역사학과 양수시엔(楊肅獻) 교수가 건의한 것처럼 진먼 역사 연구는 범위를 넓혀야 하고 계속 전역(戰役) 연구에 국한되어 있을 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는 타이완대학 정치학과 천더위(陳德禹) 교수의 의견에 호응하여 이론 연구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고 장학금을 제공하여 고무해야 한다고 했다; 당안자료(檔案資料)는 잘 보존 해야 한다; 또 그는 진먼을 연구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이며 이 작업은 현지(縣誌)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金門日報』, 2006년 11월 13일).

²⁴ 민족과 같은 맥락이지만 하나의 국민 국가에 여러 개의 민족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아울러 국족이라고 부른다(역주).

²⁵ 중요한 저자는 다음과 같다. Robert Accinelli, 1996, *Crisis and Commitment: United State Policy toward Taiwan, 1950-1955*,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Jian Chen, 2001,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Li Gong, 2001, "Tension across the Taiwan Strait in the 1950s: Chinese Strategy and Tactics," in Robert Ross and Jiang Changbin eds., *Re-examining the Cold War: US-China Diplomacy, 1954-1973*,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Thomas Christensen, 1996,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 and Sino-American Conflict, 1947-1958*,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등.

다른 역사주체의 사관(史觀) 비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진먼 전쟁사로부터 말하자면 근대 초기 네 가지 주요한 흐름이 있었다. 첫째는 통상적인 군사(軍史) 연구의 시각으로부터 질문을 던지고 있으나 해협 양안의 문헌, 당안, 신문을 비교하며 서로 다른 정치 입장에서 전쟁 배후의 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 흐름이다.²⁶ 둘째는 진먼에서 군복무를 했던 군인들의 구술사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다.²⁷ 셋째는 통상적인 국족사, 군사사의 글 쓰는 방식을 떠나 사회사와 인류학 연구의 취향으로 군사통치하의 지역사회 문화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²⁸ 넷째는 전역에서 남겨진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다.²⁹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송이밍(宋怡明)의 *Cold War Island* (2008)가 대표작이다. 그는 거시적 역사와 미시적 역사의 결합을 시도하여 세계

²⁶ (中國)沈衛平 原著, 劉文孝 補校, 2000, 『金門大戰: 臺海風雲之歷史重演』, 臺北: 中國之翼; (中國)洪小夏, 2001, 『血祭金門』, 香港: 新大陸出版社; (臺灣)田立仁, 2007, 『金門之熊: 國軍裝甲兵金門保衛戰史』, 臺北縣中和市: 大河文化.

²⁷ 行政院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 2009, 『古寧頭戰役參戰官兵口述歷史』, 臺北: 編者自印; 國防部, 2009, 『烽火歲月: 823戰役參戰官兵口述歷史』, 臺北: 編者自印 等.

²⁸ 余光弘·魏捷茲(James R. Wilkerson) 編輯, 1994, 『金門暑期人類學田野工作教室論文集』, 臺北: 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 Chi, Chang-hui, 2004, “Militarization on Quemoy and the Making of Nationalist Hegemony, 1949-1992,” 王秋桂 主編, 『金門歷史, 文化與生態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臺北: 財團法人施合鄭民俗文化基金會出版, 頁523-544; 周妙真, 2007, “官方影像中的金門戰地婦女形象(1949-1978),” 金門技術學院閩南文化研究所碩士論文(以下簡稱閩南所碩論); 蔡珮君, 2008, “從傳統聚落到‘戰鬥村’: 以金門瓊林為例,” 閩南所碩論; 林美華, 2008, “傾聽戰地的聲音: 金門的戰地廣播(1949-1992),” 閩南所碩論; 李瓊芳, 2008, “戰,” 閩南所碩論; 李雯, 2009, “從漁村, 軍港到商港—金門料羅村及其港口之空間變遷”, 閩南所碩論; 李皓. 2006. 『金門戰地政務體制下的民防自衛體系』, 政治大學歷史研究所; 呂靜怡. 2008, “『出操』的記憶與認同: 金門婦女隊員的生命經驗敘說(1949-1992),” 慈濟大學人類發展研究所碩士論文.

이밖에도 黃振良, 2003, 『金門戰役史蹟』, 金門: 金門縣文化局; 江柏煒·劉華嶽, 2009, “金門‘世界冷戰紀念地’: 軍事地景的保存與活化芻議,” 江柏煒 等 主編, 『2008金門都市計畫國際研討會論文集』, 金門: 金門縣政府, 頁77-124; J. J. Zhang(張家傑) and Bo-wei Chiang(江柏煒), 2009, “‘Normandy’ or ‘Las Vegas’? Positioning ‘Kinmen’ in the Post-war (Re)construction Era,” 江柏煒 等 主編, 『2008金門都市計畫國際研討會論文集』, 金門: 金門縣政府, 頁187-220.

²⁹ 黃振良, 2003, 『金門戰役史蹟』, 金門: 金門縣文化局; 江柏煒·劉華嶽, 2009, “金門‘世界冷戰紀念地’: 軍事地景的保存與活化芻議,” 江柏煒 等 主編, 『2008金門都市計畫國際研討會論文集』, 金門: 金門縣政府, 頁77-124; J. J. Zhang(張家傑) and Bo-wei Chiang(江柏煒), “‘Normandy’ or ‘Las Vegas’? Positioning ‘Kinmen’ in the Post-war (Re)construction Era,” 江柏煒 等 主編, 『2008金門都市計畫國際研討會論文集』, 金門: 金門縣政府, 頁187-220.

적으로 보편성의 힘을 가진 군사화, 근대성과 지연 정치화 등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진먼 주민에게 가져온 막대한 충격도 다루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주민이 군사통치 대책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분석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 관계를 설명했다(Szonyi, 2008). 지앙뵈웨이와 송이밍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가가 어떻게 젠더 정치(sexual politics)를 통해 전시체제에서 부녀의 사회역할과 형상을 만들고 규범화하고 재현하는지를 분석했고, 지역정치의 군사화/근대화/젠더 관계 삼자의 관계를 토론했다(江柏煒·宋怡明, 2008: 88-128). 그 외 지앙뵈웨이는 진먼 전사관(金門戰史館)의 역사 진술과 전시 양식에 대한 분석에서 정부 당국의 역사와 지역사회 집단기억 간의 분열을 지적했고 관광 개방 이후 전사관이 관광자원으로서 겪는 모순과 곤경을 보여주었다(江柏煒, 2007: 85-155). 이런 토론은 진먼의 전지 역사 연구에 관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도쿄대학의 카와시마 신(川島真)은 타이완 연구로부터 출발했지만 진먼 연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우선 그는 역사적 연속성에 관한 이론적 문제를 제기하고 교민 간행물인 『현영(顯影)』 및 군의 『정기중화보(正氣中華報)』의 자료를 분석한 뒤 군사화된 진먼은 여전히 교향 네트워크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진먼의 지역 역사는 완전히 분열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川島真, 2008: 207-220). 이어 그는 2011년 3월 『지역연구(地域研究)』 간행물을 통해 ‘진먼도우 연구의 동향과 가능성’을 주제로 포럼을 조직했고 천라이싱(陳來幸), 구이즈진앤(貴志俊彦) 등 학자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진먼 연구의 매력과 과제를 토론하고 카와시마 신, 송이밍, 지앙뵈웨이 등 세 편의 진먼 연구 논문을 수록했다.³⁰ 찬다오전의 영향을 받아 지앙뵈웨이는 정부 당국의 사료, 교민 편지 및 구술 인터뷰에서 군사통치 기간 동남아 중심의 해외 화교는 여전히 특수한 방식으로 교향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푸젠반공구국군(福建反共救國軍)’이 1950년대 초기 건립한 특수한 교민 송금 경로가 있었고, 해외 화교가 노군단(勞軍團)

³⁰ 이 책에 실린 세 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這三篇包括川島真, “僑郷としての金門”; Michael Szonyi, “軍事化・記憶・金門社会, 1949-1992.”; 江柏煒・Michael Szonyi, “国家, 地方社会とジェンダー政策: 戦地金門の女性役割及びイメージの再現”.

의 전지참방(戰地參訪)을 통해 군사통치하의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Chiang, 2011).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교향 네트워크는 전지 진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송이밍의 탈전지 진면의 역사에 대한 반성에 관해 적어도 두 편의 중요한 논문이 있다. 하나는 네 가지 명확한 논술, 즉 정부 당국의 논술과 영웅 기억(英雄記憶), 고난 기억(苦難記憶), 향수 기억(鄉愁記憶) 등 논술을 통해 군사화와 비군사화(去軍事化)의 경험이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토론했고, 이어 지역 행동자가 어떻게 책략적(策略性, entrepreneurial)인 방식으로 집단기억을 조작하는지를 지적했다(宋怡明, 2009: 47-69). 그리고 그는 근대 초기 진면 지역정치 맥락에서 몇 가지 중요한 논쟁을 정리했다. 이에 는 뷔이전문구역(博奕專區設立) 설립, 진샤대교(金廈大橋) 설치, 진먼다쉐도우(金門大學島)를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의제가 포함된다. 그는 이런 의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심지어 계획의 제안은 사실상 진면 사람들이 절박하게 자신의 고향이 주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했다(宋怡明, 2011). 사실상 2001년 ‘소삼통(小三通)’ 선로가 개통된 이래 진면은 다시금 민난 지역³¹의 지리와 문화 속에 위치하게 되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마주함에 있어서 진면 사람들의 다양한 정체성에 관한 연구도 향후 발전되어야 한다.

V. 변경을 넘어서: 진면 지역사 연구의 활로 모색

필자는 진면(Quemoy)이 하나의 지역문화의 매개체로서 인문사회 연구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적 과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역사적 전환과 특수한 지역적 위치는 이 섬이 민난 지역사, 타이완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속에서 모두 독특한 지위를 가지게 만들었다.

우선 방법론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역 연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³¹ 중국 푸젠 성의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 지역의 지방 언어를 민난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이 지역 사람들이 초기에 타이완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라 현재 타이완 남부 지역은 역시 민난어를 쓰는 민난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역자 주).

(見樹不見林)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을) 지리적 범주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지역사회에 관한 비교의 기초를 만들거나 혹은 지역사가 어떻게 지역사, 국족사, 세계사와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가 어떻게 거시역사에 대응하고 바뀌어 가는지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새로운 질문 방식과 이론적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가 서로 다른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하나의 지역으로서 근 500년간 진먼은 봉쇄된 섬이 아니었다.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하나의 지역적 전통으로서, 특히 근대 화교가 그러하다. 1대, 2대 화교의 대부분은 ‘교거사회집단(僑居社群, 교민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될 수 있는 한 분산되어 거주하는 가족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려고 했다. 즉 지리적인 분산 거주, 경제적인 협력 및 네트워크의 관계적인 연결을 갖고자 하고 있었다. 필자의 교향 연구 관심은 19세기 중엽 이래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진먼 교민들에게 있다. 그들의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고 운용되며, 이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향토사회를 재건했는지, 그리고 교향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나아가 혼종적 근대성인 물질문명의 상상 및 전파와 현지화를 어떻게 촉진했는지를 알고자 한다. 교향사회는 서방 공공 영역과 시민사회에 근접한 초기적인 형태의 작동 방식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과정은 화교 외부의 네트워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사회 내부가 스스로 발전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 물질, 사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은 교향사회로 하여금 역사상 보기 드문 개방성을 가지게 했다. 바꾸어 말하면 화교가족 그리고 마을은 하나의 지리적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집단이었고, 이는 서구한학(西方漢學)에서 말하는 종족 내부에서의 작동에 관한 개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또한 이는 지리학의 선형적 존재의 전통 영역인 마을(村落) 연구에 의문을 던지고 이론을 성찰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하나는 진먼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 방식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다. 43년에 달하는 기나긴 군사통치 아래 진먼은 송이밍이 말하는 ‘군사화의 유토피아 모더니즘(militarized utopian modernism)’-삼민주의(三民主義) 모범 현(縣)을 목표로 하는 전방기지로서의 운영 방식을 만들어냈다(Szonyi, 2008: 244). 국가와 지역의 관계는 더 세밀하게 네 개의 차원으로 구분해서 고찰해야 한다. 타

이페이 중앙정부/진먼 방위사령부/진먼 민간사회/해외 교민사회 등이다. 이들의 상호작용 관계는 역사적 환경에 따라 변했다. 진먼 민간사회는 억압된 상황이었으나, 정치자원을 소유한 해외 교민사회가 주체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진먼 민간사회를 대신해서 타이페이 중앙정부, 진먼 방위사령부에 그들의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사회사의 시각에서 여전히 심각한 이론적 문제가 존재한다. 즉 전쟁의 공포와 위협, 고압적인 군사통치, 심지어 백색공포의 박해를 받은 전방의 주민들은 도대체 자신의 암울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떻게 이 역사 유산을 계승하고 서술하고 재현하는지, 어떠한 집단기억은 망각의 선택을 받았고, 또 어떠한 집단기억은 다시금 편성되고 있는지 등 이 모든 것은 ‘탈전지(後戰地)’ 진먼이 가지는 필요한 역사적 성찰이고 또 학술적 과제로서 심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먼학’은 어떻게 하나의 효과적이고 인정받는 분과학문으로 될 것인가? 타이완 연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다.

사실, ‘타이완’은 하나의 인문사회 연구의 범주로서 고도의 복잡성을 갖고 있다. 오늘날 타이완이라는 정치 공동체는 바로 세계냉전의 국제 형세 속에서 형성되었다. 1949년 고령두 전투(古寧頭戰役), 1954년 9·3 포격전(제1차 타이완해협 위기), 1958년 8·23 포격전(제2차 타이완해협 위기) 등은 특히 이 정치공동체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사실상, 식민역사 외에 타이완 근대사는 진먼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진먼, 마주의 전지 역사는 당지 사람들의 생활경험일 뿐만 아니라 대량의 타이완 군복무 청년들의 공통된 기억이다. 동시에 타이완의 정체성 위기는 종족(ethnic) 정치, 정당 충돌, 남북 지역(남쪽은 녹색, 북쪽은 청색에 투표) 차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먼, 마주 관련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즉 진먼 연구는 반영적 역할(reflective role)을 하면서 타이완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 있게 한다. 또한 진먼 연구는 타이완 사회의 전환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위해 공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진먼에서의 장기간 군사통치 상황은 타이완에서의 권위시대 백색공포 상황과 공통점이 많다. 혹은 속칭 831이라 불리는 군성매매업소와 일제시대 위안부에 관한 비교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물론, 여러 학문 간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역사학, 지리학, 인류학, 언어학, 사회학, 정치경제학, 공간(空間) 연구 등 학제적 연구 성과를 활용하

는 것과 착실한 본토 연구와 세계사, 세계학술이론 사이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설득력 있는 인문학과 인식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타이완 연구 및 ‘진먼학’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투고일: 2013년 12월 19일 | 심사일: 2013년 12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참고문헌

- 江錦財. 1992. “金門傳統民宅營建計畫之研究.” 國立成功大學建築研究所碩士論文.
- 江柏煒. 1994. “宗族移民聚落空間變遷的社會歷史分析: 金門瓊林與澎湖興仁的比較研究.” 國立臺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所碩士論文.
- _____. 1999. “從軍事城堡到宗族聚落: 福建金門城之研究.” 『城市與設計學報』第七, 八期, 133-177. 臺北: 都市設計學會.
- _____. 2003. “晚清時期的華僑家族及僑資聚落: 福建金門山后王氏中堡之案例研究.” 『人文及社會科學集刊』第十五卷第一期, 1-57. 臺北: 中央研究院中山人文社會科學所.
- _____. 2005. “僑刊史料中的金門(1920s-40s): 珠山「顯影」(Shining)之考察.” 『人文及社會科學集刊』第十七卷 第一期, 159-216. 臺北: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 _____. 2006. 『顯影』25冊(重印出版). 金門: 國立金門技術學院, 金門珠山薛氏宗親會.
- _____. 2007. “誰的戰爭歷史? 金門戰史館的國族歷史vs.民間社會的集體記憶.” 『民俗曲藝』156期, 85-155. 臺北: 施合鄭民俗文化基金會.
- _____. 2009. 『海外金門會館調查實錄: 馬來西亞篇』. 金門: 金門縣文化局.
- _____. 2007. “宗族, 宗祠建築及其社會生活: 以福建金門為例.” 林蔚文主編. 『海峽兩岸傳統文化藝術研究』, 364-398. 福州: 海潮攝影藝術出版社.
- _____. 2010. 『星洲活民: 新加坡金門人的宗鄉會館』. 金門: 金門縣文化局.
- _____. 2011. “混雜的現代性’: 近代金門地方社會的文化想像及其實踐.” 『民俗曲藝』174期, 185-257. 臺北: 施合鄭民俗文化基金會.
- _____. 2012. “在金門與長崎之間: 新頭陳氏家族的社會網絡考察.” 『2012年金門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455-480. 臺南: 成功大學人文社會科學中心, 金門縣文化局.
- _____. 2012. “金門洋樓: 近代閩南僑鄉文化變遷的案例研究.” 『國立臺灣大學建築與城

- 鄉研究學報』第二十期, 1-24. 臺北: 臺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所.
- 江柏煒·劉華嶽. 2009. “金門‘世界冷戰紀念地’: 軍事地景的保存與活化芻議.” 江柏煒等主編. 『2008金門都市計畫國際研討會論文集』, 77-124. 金門: 金門縣政府.
- 江柏煒·宋怡明(Michael Szonyi) 著. 阿部由美子 譯. 2011. “国家, 地方社会とジェンダー政策: 戦地金門の女性役割及びイメージの再現.” 『地域研究』第11卷 第1号, 88-128. 京都: 京都大学地域研究統合情報センター發行.
- 顧祖禹. 1662~1722. 『讀史方輿紀要』. 清康熙年間職思堂清鈔底本, 國家圖書館善本書庫藏.
- 郭堯齡 等 編. 1979. 『金門縣志』. 金門: 金門文獻委員會.
- 國防部. 2009. 『烽火歲月: 823戰役參戰官兵口述歷史』. 臺北: 編者自印.
- 金門縣文獻委員會. 1968. 『金門縣志』. 初版, 金門縣政府.
- _____. 1979. 『金門縣志』. 重修版(上, 下兩冊), 金門縣政府.
- _____. 1992. 『金門縣志』. 增修版(上, 中, 下三冊), 金門縣政府.
- _____. 1999. 『金門縣志』. 增修版(上, 中, 下三冊), 金門縣政府.
- 金門縣文獻委員會 編. 1960. 『金門華僑志』. 金門: 編者自印.
- 金門縣政府. 1992. 《金門縣志》. 金門: 編者自印.
- _____. 2009. 《金門縣志》續修. 金門: 編者自印.
- 潘翎 主編. 1998. 『海外華人百科全書』. 香港: 三聯書店.
- 麥留芳. 1985. 『方言群認同: 早期星馬華人的分類法則』. 臺北: 中央研究院民族所專刊乙種第十四號.
- 方清熙 主編. 2003. 『護頭方氏族譜』. 金門: 護頭方氏族譜修繕委員會.
- 徐霏. 1968. 『小腆紀年』. 臺北: 文海出版社.
- 宋怡明(Michael Szonyi). 2011. “金門在前線: 1949 年以來地域政治, 兩岸關係和地方社會.” 江柏煒 主編. 『福建省金馬歷史回顧與展望學術研討會』, 1-14. 金門: 福建省政府.
- 宋怡明(Michael Szonyi) 著. 李仁淵 譯. 2009. “戰火下的記憶政治: 金門, 1949-2008.” 『考古人類學刊』第71期, 47-69. 臺北: 臺灣大學人類學系.
- 市川信愛 監修. 朱德蘭 編集. 1993. 『長崎華商泰益號關係商業書簡資料集: 關門地區商號』. 原史料藏於長崎市立博物館, 日本: 九州國際大學國際商學部複製本, 日本文部省科學研究費補助國際共同研究.
- 楊英 著. 臺灣銀行經濟研究室 編. 1958. 『從征錄』. 臺北: 臺灣銀行經濟研究室.
- 楊天厚. 2011. “金門宗祠祭儀研究: 以陳, 蔡, 許三姓家族為例.” 東吳大學中文系博士論文.
- 余光弘·魏捷茲(James R. Wilkerson) 編輯. 1994. 『金門暑期人類學田野工作教室論文

- 集』。臺北：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
- 呂靜怡。2008。“「出操」的記憶與認同：金門婦女隊員的生命經驗敘說(1949-1992)。”慈濟大學人類發展研究所碩士論文。
- 葉鈞培·許志仁·王建成合編。2000。『歲時節俗與生命禮儀』。金門：金門縣立文化中心。
- 吳培暉。1997。“1911年以前金門與澎湖村落空間的比較。”國立成功大學建築研究所博士論文。
- 溫瑞臨。1968。『南疆繹史』。臺北：成文出版社。
- 汪毅夫·楊彥杰·謝重光。1999。『金門史稿』。廈門：鷺江出版社。
- 王鐵崖編。1957。『中外舊約章匯編』。北京：三聯書局。
- 王秋桂主編。2004。『金門歷史，文化與生態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臺北：財團法人施合鄭民俗文化基金會出版。
- 李乾朗。1978。『金門民居建築』。臺北：雄獅圖書。
- 李瓊芳。2008。“戰地政務時期的金門學校教育。”金門技術學院閩南文化研究所碩士論文。
- 李國祥等編。1993。『明實錄類纂-福建臺灣卷』。武漢：武漢出版社。
- 李雯。2009。“從漁村，軍港到商港－金門料羅村及其港口之空間變遷。”金門技術學院閩南文化研究所碩士論文。
- 李永熾監修，薛化元主編。1990。『臺灣歷史年表—終戰篇 I(1945~1965)』。臺北：業強出版社。
- 李宗翰。2012。“清代國家與地方家族之合作關係：以光緒「金門志」為例。”第四屆民間歷史文獻論壇。廈門大學民間歷史文獻研究中心。
- 李皓。2006。『金門戰地政務體制下的民防自衛體系』。政治大學歷史研究所。
- 林金枝。1986。“論近代華僑在汕頭地區的投資及其利用。”『汕頭僑史論叢』第一輯，115。汕頭：汕頭華僑歷史學會。
- 林美華。2008。“傾聽戰地的聲音：金門的戰地廣播(1949~1992)。”金門技術學院閩南文化研究所碩士論文。
- 林衡道。1996。“臺灣世居住民的祖籍與神明。”『臺灣地區開闢史科學術論文集』，249-319。臺北：聯經。
- 林焜熿。1960。『金門志』。臺北：臺灣銀行經濟研究室。
- 張宇彤。2001。“金門與澎湖傳統民宅形塑之比較研究：以營建中的禁忌，儀式與裝飾論述之。”國立成功大學建築研究所博士論文。
- 田立仁。2007。『金門之熊：國軍裝甲兵金門保衛戰史』。臺北縣中和市：大河文化。
- 『正氣中華報』。“金門商會召開座談商討僑匯問題。”1951. 4月 11日 第四版。

- 朱德蘭. 1995. “明治時期長崎華商泰昌號和泰益號國際貿易網絡之展開.” 『人文及社會科學集刊』第7卷 第2期, 53-75.
- _____. 1997. “近代長崎華商泰益號與上海地區商號之間的貿易.” 張炎憲主編. 『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第六輯, 349-388. 臺北: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 _____. 1997. 『長崎華商貿易の史的研究』. 東京: 芙蓉書房.
- _____. 1999. “近代長崎華商泰益號與廈門地區商號之間的貿易.” 湯熙勇主. 『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第七輯·上册, 201-203. 臺北: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 _____. 2012. “長崎華商泰益號與臺南地區商號的貿易活動(1901~1938).” 『港口城市與貿易網絡』, 291-338. 臺北: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 朱德蘭·市川信愛. 1999. “戰前期長崎華商のアジア海域交易ネットワーク—今次金融危機と長崎華商「泰益號」文書再考.” 日本九州國際大學社會文化研究所. 『紀要』第43號, 157-182.
- 周妙真. 2007. “官方影像中的金門戰地婦女形象(1949-1978).” 金門技術學院閩南文化研究所碩士論文.
- 陳炳容. 2008. “金門宗祠祭祖研究: 以陳氏大宗穎川堂等六宗祠為例.” 銘傳大學應用中文系碩士在職專班碩士論文.
- 蔡尚溫 主編. 1992. 『浯江瓊林蔡氏族譜』. 金門: 金門瓊林蔡氏宗親會.
- 蔡珮君. 2008. “從傳統聚落到「戰鬥村」: 以金門瓊林為例.” 金門技術學院閩南文化研究所碩士論文.
- 川島真. 2008. “金門的軍事基地化與僑鄉因素的變遷: 1949年前後的連續與斷絕.” 林正珍 主編. 『2008年金門學學術研討會論文集』, 207-220. 金門: 金門縣文化局.
- 沈衛平原 著. 劉文孝 補校. 2000. 『金門大戰: 臺海風雲之歷史重演』. 臺北: 中國之翼.
- 何喬遠. 1628~1644. 『閩書』. 明崇禎年間刊配補鈔本, 國家圖書館善本書庫藏.
- 行政院國軍退役役官兵輔導委員會. 2009. 『古寧頭戰役參戰官兵口述歷史』. 臺北: 編者自印.
- 許如中. 1959. 『新金門志』. 金門: 金門縣政府.
- 許紫芬. 1999. “1880年代東北亞地區華商的貿易活動.” 湯熙勇主編. 『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第七輯·上册, 171-199. 臺北: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 _____. 2002. “日本華商商幫組織的變遷—以長崎福建華商組織為例.” 『東北亞僑社網絡與近代中國』, 145-193. 臺北, 中華民國海外華人研究學會.
- 胡璉. 1976. 『金門憶舊』. 臺北: 黎明公司.
- 洪小夏. 2001. 『血祭金門』. 香港: 新大陸出版社.
- 洪受. 1970. 『滄海紀遺』. 金門: 金門文獻委員會.

- 洪受 著, 吳島 校釋. 2002. 『滄海記遺校釋』, 臺北: 臺灣古籍.
- 黃任 纂修, 臺灣銀行經濟研究室 編. 1958. 『泉州府志選錄』, 臺北: 大通書局.
- 黃振良. 2003. 『金門戰役史蹟』, 金門: 金門縣文化局.
- Chi, Chang-hui(戚常卉). 2004. "Militarization on Quemoy and the Making of Nationalist Hegemony, 1949-1992." 王秋桂 主編. 『金門歷史, 文化與生態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523-544. 臺北: 財團法人施合鄭民俗文化基金會出版.
- Chiang, Bo-wei(江柏煒). 2011. "A Special Intermittence and Continuity in Local History: The Chinese Diaspora and their Hometown in Battlefield Quemoy during 1949-1960s." *Journal of Chinese Overseas* 7(1), 169-186.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 Ridge.
- l'Abbé Antoine François Prévost. 1746-1759. *Histoire générale des Voyages*, Paris, 15 volumes, with maps and views by Jacques-Nicolas Bellin.
- Settlements, Straits. 1934. *Report of Protector of Chinese 1932*. Singapore: Government Press.
- Szonyi, Michael. 2008. *Cold War Island: Quemoy on the Front Lin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ng, Gungwu. 1991. "Merchants without Empires: The Hokkien Sojourning Communities." In Wang, Gungwu ed. *China and the Chinese Overseas*.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79-101.
- Zhang, J. J.(張家傑) and Bo-wei Chiang(江柏煒). 2009. "'Normandy' or 'Las Vegas'? Positioning 'Kinmen' in the Post-war (Re)construction Era." 江柏煒 等 主編. 『2008 金門都市計畫國際研討會論文集』, 187-220. 金門: 金門縣政府.

미국 정부 문서

- CIA, *The Chinese Offshore Islands*, 8 Sept. 1954, IA-RDP80R01443R000300050008-7, National Archives, USA.
- Department of State, Taiwan Straits Situation, NND009038, 1958/08/30, National Archives, USA.
- Navy Department, *Naval Message*, NND009038, 1958/08/30, National Archives, USA.
- Parsons, J. Graham *Background Information and Recommendations Relating to the Situation in the Taiwan Straits*, NND009038, 1958/08/29, National Archives, USA.

Abstract

Boundaries and Beyond Boundaries: Quemoy, a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Bo-Wei Chiang National Quemoy University

Quemoy (*Jinmen*³²), located to the west of the Taiwan Strait and beyond the mouths of the Jiulong River, Xiamen Bay, and Weitou Bay in Minnan,³³ is a landmark that stands as a strong fortress wall ‘proudly safeguarding the gate of the sea.’ It has been a critical point in coastal defense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4th century. Since its transformation into an outpost during the China-Taiwan confrontation period and the Cold War (1949-1992), the space of Quemoy and its society have become a highly militarized zone.

This study on Quemoy is focused on analyzing the previous scholarship of the most recent 20 years, emphasizing the need for researches on Quemoy in relation to the studie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Taiwanese history as a whole. Firstly, as one of the original places of domicile where the early immigrants had settled in Taiwan, during the Age of Exploration, Quemoy became established as a center in the Age of Exploration, after undergoing the phase of frequent migration and reclamation.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he compilation of chorography (*difangzhi*) reinforced the autonomy of Quemoy, and revealed

³² Hanyu Pinyin Romanization. aka. *Chinmen* in the Wades-Giles romanization.

³³ It refers to the southern area of Fujian Province in Chin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great families (*dazu*) of the provinces. The intangible and tangible cultural heritages left by Quemoy have become an important site of research in the areas of architectural history, religious studies, and local customs. Secondly,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social groups and capital, as well as the cultural transmission which flowed across boundaries and the overseas Chinese community (*qiaoxiang*) society, overseas Chinese families, and overseas Chinese clan associations (*buiguan*) in Quemoy since the modern era. Thirdly, it will analyze the society of Quemoy as an island of the Cold War since 1949. It will also review early modern records on demilitariz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 new direction for Quemology, which calls for the linking of the area studies on Quemoy more closely with those of regional history, ethno-national history, and world history, thereb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exchange between diverse academic disciplines.

Keywords | Minnan culture, Quemology, research on overseas Chinese communities, Cold War history, sociocultural history